

GRACE 선교소식

인도

- 강OO 이OO 선교사

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어린이 사역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통한 골짜기의 복음화와 졸업생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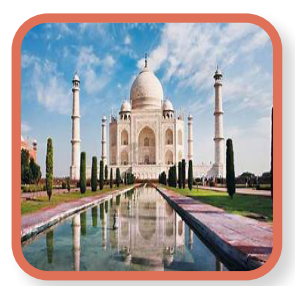
2023년 11월 24일, 신학교 6기생 27명이 은혜가운데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6기로 졸업한 4명의 졸업생들(팔반, 담, 드네쉬, 라키불)의 사역을 둘러보러 지난 12월 초에 골짜타를 방문했습니다. 드네쉬와 라키불은 각각 힌두와 무슬림 백

2 명씩 짝을 지어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처음엔 말하기가 쑥스러웠는데 계속 하다보니 자신감이 붙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많은 수가 아니지만 그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 그룹홈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들이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믿음이 좋은 보모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임대한 단독 주택에서 보모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교회 건축이 거의 완공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마찰 프라데시 주의 아제이, 두 번째는 유피 주의 비디아사거르, 세 번째는 라즈 꾸마르, 그리고 네 번째 편잡 주의 만짓싱의 교회입니다. 비디아사거르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하겠다는 포부를 말합니다. 세워진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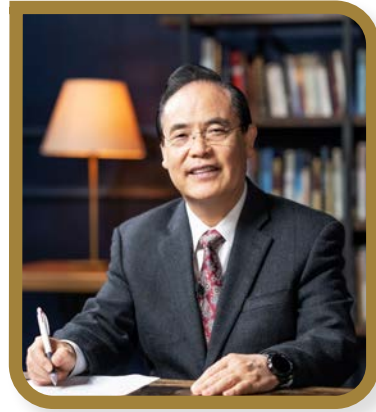
양생들은 선교사에게 그리고 학업은 학교수업과 개인 과외를 통해 제공 받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실한 하나님의 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 한OO 김OO 선교사

해마다 협력교회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하였는데 이번에는 중고등부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학교를 열었습니다. 강사가 전도의 당위성과 전도방법을 가르치고 서로를 대상으로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한 후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목요일 오전에 KWMC 선교대회가 끝나고 GMI 선교사 훈련원 14기 미주 훈련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14기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4개월간의 한국 훈련을 마치고 미주 훈련을 시작하는 시점에 먼저

KWMC 선교 대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출발하게 된 것은 매우 귀중한 축복입니다. 모두가 미주 훈련 잘 받고 주님께서 기뻐 보내시는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 천안인들중영교회부흥성회(7/19-7/21)
 - ▷ 한국 은혜동산16기 (7/22-7/25)
 - ▷ 세계로방주교회부흥성회(7/26-7/28)
 - ▷ 몽골 TD 1기 (7/26-8/3)
-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베네주엘라

-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

먼저 베네수엘라 국내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아마존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입니다. 특별히 야노마미 부족 선교 마무리를 위해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조엘 선교사와 함께 할 선교팀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복음화와 졸업생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기생 힐라리우스의 고향인 자르칸트는 많이 낙후되어 있고, 언어와 지역적 환경으로 접촉 자체가 어려운데 힐라리우스는 고향 지역을 중심으로 13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하며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작년 10월, 선교대회에서 중남미에서 500명의 단, 장기 선교사들을 일으켜 파송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순종하기에 부담되고 어려운 부르심 같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500명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파송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걱정과 고민들 가운데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과 길로 주님의 뜻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순종의 발걸음을 한발씩 내딛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신학교 6기생 27명이 은혜가운데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6기로 졸업한 4명의 졸업생들(팔반, 담, 드네쉬, 라키불)의 사역을 둘러보러 지난 12월 초에 골짜타를 방문했습니다. 드네쉬와 라키불은 각각 힌두와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어린이 사역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통한 골짜타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h3>필리핀 김적용 박영란</h3> <p>한국에 온지 3주째가 되는 지금 김적용선교사는 신체 부위는 잘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의 여러 치료과정을 힘겨워하지만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인지가 안되어 MRI는 못찍고 있으며 염려했던 언어부분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인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담당 의사는 6개월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시는 많은분들께 감사드립니다.</p>	<h3>인도 남OO</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가 7월1일 개강합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치지 않도록 2.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3. 말씀과 기도로 예수 사랑이 충만하도록 4.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5.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충만으로 노년에 예수 기쁨과 행복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h3>북한 이OO</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 이후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는 탈북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북한의 상황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가찬 시간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 시기에 남한교회와 디아스포라가 북한선교를 전략적으로 준비할수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 사역을 잘 감당할수있도록 2. 9월에 캠퍼스와 남한교회에서 북한선교훈련학교가 시작되는데 담당해 주시는 캠퍼스의 교수님과 남한교회의 담임목사님이 북한선교에 구체적인 비전을 받고 학생들과 성도들이 잘 준비될수있도록 	<h3>네팔 김OO 오OO</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PBA BIBLE COLLEGE 7월 중순부터 새 학기 시작됩니다. 신입생 모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지금 짓고 있는 MAHIMA NEW SONG CHURCH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3. 청년들 사역을 위해 땅구입해서 센터 짓는 일이 잘 되도록 4. DHANGADI GRACE CHURCH 이층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5. 농업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	---	--	--

탄자니아

- 송규영 오효숙 선교사

빗물이 흠속에 스며들면서 기초면 바닥이 자연적으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기계로 바닥을 다지는 공사가 필요없을 정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공사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돌을 채우는 작업을 하면서 큰돌들은 망치로 판판하게 자리를 정돈하고 잔돌들을 사이사이에 넣어 균형을 잡는 일을 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다

음주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마칠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 드리고, 간절한 기도로 함께 동역 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 2주일 전부터 비가 꺼금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우기가 그침에 따라 다시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우기철에 장대비가 계속 되면서

레바논

- 장OO 서OO 선교사

는 것이 기적입니다. 침 의료사역을 하며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혈압, 콜레스테롤 환자들이 약이 너무 비싸서 사먹을 수가 없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긴장감 최고조의 시간에 있습니다.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군은 6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부 사령관인 오리 고딘 소장과 작전참

모인 오데드 바시우크 소장이 전황 평가 회의를 열고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 사령관들은 지상군 준비 태세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문이 감도는 레바논 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레바논은 환율이 최근 60배가 오르고 미국 못지 않게 물가가 비싸게 올랐고 은행은 매달 200불만 인출이 됩니다. 다들 살아 있다

태국

- 임진섭 양윤희 선교사

두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주차 주말 수양회에서 2번의 기도시간을 통해 캔디(새신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도하고 방언을 받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마치고 몇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양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

회는 태국인과 소수민족인 카렌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국인인 쿤찌압과 쿤아이, 쿤니를 통해서 제자 양육의 시작을 하고, 쿤투로 시작하여 카렌족의 양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의 배가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 1기를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9주간의 긴 시간동안 잘 진행하였습니다. 첫 주에 9명으로 시작하여 모

인도네시아

- 기OO 선교사

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 사역자와 하나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기도회 이후에도 목요일 기도회 모임에 7-8명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많이 경험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대기적 성경읽기는 계속 됩니다. 10여명 사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읽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 성경 통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지 않아 뒤쳐진 친구들도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다시 읽어 살아가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있었던 특별 기도회(5/10~5/18)은 감사하게도 매일 20-25명의 사역자와 학생들이 모여 성령님을 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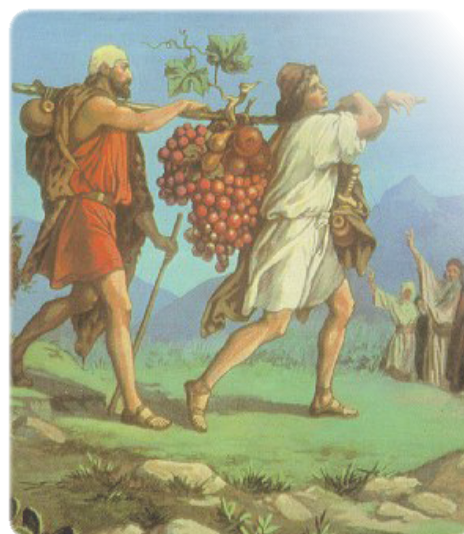
나는 진정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가?

<1분당 129-7월호>

-김대규 장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지형적으로 보아서 가나안 땅은 근동의 비옥한 지역의 변두리에 있지만 건조하고 사막적인 여건을 보아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우기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기에 이 표현은 땅의 비옥함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열두 정탐꾼이 가져온 엄청난 크기의 과일들을 보아서도 가나안은 눈으로 보여지는 비옥한 땅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젖"이란 유목업과 "꿀"이란 과일나무에서 얻어지는 즙으로서의 풀인 "아시 스"가 주류인 과수농업이 풍부했음을 보여준다(민13:27). 이는 이웃인 애굽은 자연 환경적으로 풍부한 수원자원이 있어 비옥하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지역인데 반해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흡수하는 척박한 땅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존해야하는 지역인 것을 말한다. 이런 땅을 하나님의 돌보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룩한 땅(신11:12)이라고 주신 우 주만물, 모두가 조화를 이룬 영원한 복의 근원의 땅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 모든 것을 상실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타락한 모든 인간을 구원코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가나안에는 여러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한결같이 이상숭배와 타락과 음란이 만연하였다. 하나님보시기에는 이를 척결해야만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기에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 이방신을 섬겨 타락하고 남은 자들이 흑이 되어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얼핏보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기도하다. 우리는 세상 에서 제일 풍요로운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듯이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땅이지만 과연 우리에게는 가나안인가? 하는 것이다.

이 땅의 풍요로움은 마치 옛 애굽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된 곳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만족하여 즐기며 산다면 이상적이인 가나안 족속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패역한 가나안에 동화된 죄악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을 주를 위한 삶의 수단과 하나님나라를 심는 터로 이용할 뿐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 자체가 아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도 세상을 따라서 안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란 것이다. 척박한 곳이라도 그 곳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주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진정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신 8:1,11,18). 이것이 신앙의 원리대로 사는 방법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종착지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서 축복의 땅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락원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께 순종하여 우리의 거처의 종착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진정한 가나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락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땅에 살아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은 그들뿐 아니라 온 인류가 회복해야 할 에덴동산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로